



‘경총 도약’ 토끼띠 직원들과 기념촬영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에서 김영록 지사가 토끼띠 직원들에게 토끼 인형을 나눠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강기정 시장 “보이는 변화로 시민행복 견인” 김영록 지사 “전남 대도약 원년...기반 마련”

2023년 시무식  
 “사고·재해 등 제로화 노력”  
 ‘일념통천’ 미래성장동력 육성

강기정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정례조례회를 겸한 시무식을 통해 “조직 활력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민 행복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소속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4명의 공무원 대표에게 질문을 받고 강 시장이 즉석에서 답하는 덕담토끼 형식으로 진행됐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질문에 강 시장은 “4000여 공직자가 지금처럼 해준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달 기록적 폭설과 관련, “큰 도로는 시정, 작은 도로는 구청이, 내 집 앞은 시민이 캠페인에 맞춰 힘을 모아준 덕분에 큰 사

고 없이 극복했다”며 “함께 하면 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해에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의 제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에 있어 미래 씨앗이 되는 귀한 예산이 많은데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그중 하나다”며 “늘 강조하는 실패가 스펙이 되는 사례가 됐다. 시도하고 실패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실패한 이들이 성공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2일 “새해를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도록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한해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자지로 전남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해 전남 대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

정, 세계갯벌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개장 등 전남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예산 11조 8000억원에 국고예산 8조 6500억원으로 확보했다.

주요 반영 신규 예산은 전남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센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전남이 세계로 뚫고 나가는 전남이 살아 더 나아지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지역의 강점인 농축수산업은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수출산업화 등 농업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생명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광양제철·여수화력국가산단·서남권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지역산업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살리도록

자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김대중 평화회의,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 성공적으로 치를 계획이다.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 등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기동대는 대폭 확대한다.

또 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도 지원한다. 지역경제 훈풍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한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고 이를 위해 올 한해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일상·박종배 기자

## 민주당 “민생 살피고, 檢 독재 막겠다”

광주전남도당 5·18 참배...尹 정부 야당 탄압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국회·지방의원들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

이날 광주시당에서는 이병훈 시장 위원장(당남을)을 비롯,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과 참배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5·18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경건한 마음으로 광주정신의 항구적 계승과 민생쟁기기를 다짐했다.

참배 후 진행된 광주시당 신년인사 사회에서는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고문단 등의 신년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때마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며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 출

범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고 검찰독재 시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광주정신 계승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 중심 민주당으로 환골탈태 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에서는 신정훈 도당위원장(나주·화순)을 포함해 이개호,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김원이, 김희재, 윤재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참배 후 5·18민주묘지 민주주의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대북 강경 발언에 따른 한반도 위기 조래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위기의 시대, 우리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경제위기극복·복쇼·도철 2호선·부동산’

광주·전남민 뽑은 새해 키워드 설문조사

광주·전남 지역민 3명 가운데 1명 꼴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소망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환율·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는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도민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2024년)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사랑방 뉴스룸이 지난달 22~26일 5일간 지역민 6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전남·경제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새해의 광주·전남 주요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는 ‘성장률 저하 등 경기침체 극복’을 올해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이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25.2%),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원활한 추진(17.4%), 부동산시장 활성화(11.6%), 취업난·고용불안 해결(10.6%)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2024년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이 28.2%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하반기(27.3%), 2025년(19.7%), 올해 상반기(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

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조사 대상자의 59.7%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금리인하’를 꼽았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19.2%), 취득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14%), 대규모 투자·개발사업(3.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4명중 3명은 올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보합세’를 접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은 58.4%, 보합세라는 답변은 18.5%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최근 광주·전남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효과적인 물 절약 실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34.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뉴스시스

2023 신년사	2·3·5면
양도·상속·증여세 완화	4면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3면

**SAMSUNG**

**새로운 출발**

모두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